



기술과 미학과 자연의 관계성 Nikon Beijing Flagship

에디터 장영남

니콘 베이징 플래그십 스토어는 공간 자체가 창작의 무대이다. 빛과 공간을 강조하는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구현해 사진 애호가들에게 사진과 환경이 어우러진 몰입형 경험을 제공한다.

룩스튜디오(Lukstudio)와 니콘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쇼핑 지구 타이쿠 리 썬리툰 남구에서 니콘 직영점을 열어 빛과 공간과 사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건물 외관과 높이 8m에 달하는 내부에 일반 쇼핑몰과 구별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과제였고, 룩스튜디오는 카메라 기술과 미학, 자연에서 얻은 영감과 산업 디자인을 혼합한 독특한 공간을 만들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도심의 리테일 환경에서 매장을 차별화해 브랜드 정체성과 문화적 공감을 강화한다.



주름진 강판, 인조 석재,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대나무 등 다양한 소재의 결합은 질감의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외관을 만들어낸다.

룩스튜디오는 친환경 철학을 실천하고자 기존 커튼월 구조를 재활용했다. 주요 구조물과 보조 구조물을 세심하게 조직하고 실내와 실외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외피'를 설계함으로써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소재들을 조합했다. 또 주름진 강판, 인조 석재,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대나무 등을 활용했는데, 이런 다양한 소재의 결합은 질감의 상호작용으로 풍부한 외관을 만들어낸다. 특히 대나무 소재로 덧댄 창문들은 카메라 뷰파인더처럼 테두리가 바깥으로 확장되어 주변의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한다.



입구의 원형 전시 방식은 마치 카메라 렌즈와 흡사해 전시품에 대한 고객의 흥미를 돋운다.



Design / Lukstudio
 Location / 베이징, 중국
 Gross built area / 377㎡
 Photograph / Wen Studio

대나무 소재로 덧댄 창문들은 카메라 뷰파인더처럼 테두리가 바깥으로 확장되어 주변의 흥미로운 순간을 포착한다.





▲ 원형 아트리움은 니콘 베이징 플래그십 스토어의 핵심으로, 여러 기능이 통합되었다.



▲ 메자닌 층은 유리 and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의 공중 보행로가 포켓 공간을 연결하며 하이테크의 정밀성을 부각한다.



곡선형 벽은 질감 있는 베이지 페인트로 마감되어 동굴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도 페인트의 흡음 기능성으로 원형 아트리움은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러 기능이 통합된 원형 아트리움은 니콘 베이징 플래그십(Nikon Beijing Flagship)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곡선형 벽은 질감 있는 베이지 페인트로 마감되어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뤄진 동굴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도 페인트의 흡음 기능성으로 원형 아트리움은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바닥은 베이징의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재활용 벽돌로 마감해 환경친화성과 지역색을 살렸다. 전시대와 선반은 느릅나무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해 자연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이었다. 메자닌 층은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의





▲ 1층 원형 전시장 바닥은 베이징의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재활용 벽돌로 마감해 환경친화성과 지역색을 살렸다.

공중 보행로가 작고 아늑한 포켓 공간을 연결하며 하이테크의 정밀성을 부각한다. 계단식 원형 천장은 카메라 렌즈의 다층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우아하면서도 강한 매력을 발산한다.

고객이 제품을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은 자연광이 더 많이 유입된다. 두 층에서 유람하는 고객 간 시야를 고려해 이곳의 공중 보행로 난간은 목재와 알루미늄 구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제작했다. 워크숍 공중 보행로는 바다와 1층 벽으로 확장되는데, 다양한 기계들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선형 배열은 난간, 조명, 선반 등 디자인 시스템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반대편 테마 월은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외관 디자인 아이디어를 함축한다. 소음 흡음 패널, 전시 선반, 아크릴 패널, 그리고 카메라 조립 과정을 묘사한 목각 작품들이 통합됨으로써 단순한 장식을 넘어선 다차원의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작동한다.



계단식 원형 천장은 카메라 렌즈의 다층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우아하면서도 강한 매력을 발산한다.



워크숍 공중 보행로 난간은 두 층에서 유람하는 고객 간 시야를 고려해 목재와 알루미늄 구조에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제작했다.



선형 배열은 난간, 조명, 선반 등 디자인 시스템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고객이 제품을 체험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 공간은 자연광이 더 많이 유입된다.



고객이 직접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렌즈 체크인 공간이 정문에서 고객을 맞이한다.



▲ 리셉션 뒤 밀집으로 만든 친환경 패널 배경은 니콘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한다.

▼ 라운지 공간은 맞춤형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좌석, 조명, 선반을 통합한 이 시스템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렌즈 체크인 공간은 정문에서 고객을 맞이한다. 이는 니콘의 도심형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반복되는 특징이며, 리셉션 뒤 밑걸음으로 만든 친환경 패널 배경은 니콘의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한다. 입구의 원형 전시 방식은 마치 카메라 렌즈와 흡사해 전시 품에 대한 고객의 흥미를 돋운다. 라운지 공간은 목재와 알루미늄의 조립식 키트가 기둥을 감싸는 맞춤형 가구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데, 좌석, 조명, 선반을 통합한 이 시스템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니콘 베이징 플래그십은 '빛이 사진의 영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빛을 건축적으로 표현했다. 낮 동안은 건물의 부피 그리고 투명도가 다른 개구부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빛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하고, 밤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보완하며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파사드를 통해 담아낸다. 빛과 그림자의 교차는 공간에 시적 감성을 더하며, 사진가들이 장비를 즉석에서 테스트하고 작품을 창작하도록 한다. 북적이는 썬리튼 상업 지구에서 룩 스튜디오와 니콘은 사진 커뮤니티에게 몸과 마음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



니콘 베이징 플래그십은 빛을 건축적으로 표현했다. 낮에는 투명도가 다른 개구부를 통해 빛의 미묘한 변화가 기록되고, 밤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모습이 파사드에서 구현된다.